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 박 해 숙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이 재 정

|                           |
|---------------------------|
| I. 서론                     |
| II. 이론적 연구                |
| III.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패션 프로그램 |
| IV. 사례연구 및 호감도조사 내용       |
| V. 결론                     |

<요 약>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으나 미국 정신 지체인 학회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 1992)에 따른, “정신지체란 적응행동에 대한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지적능력(知的能力)이 현저하게 평균이하(IQ 70-75이하)인 상태로서 이러한 현상이 발달기간(18세 이전) 중에 나타난다.” 는 정의가 일반적이다.

20세기 초에는 지능검사의 창안으로 정신지체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지능지수(I.Q)를 유일한 도구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지능과 적응행동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해서 예전의 지력지체(知力遲滯)만을 주개념으로 하던 양상에서 지능과 적응 행동 간의 총족개념으로 동시에 받아들여야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애계획과 목적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생활을 운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이들에게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으나 기능적인 문제와 경험부족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다. 정신지체인 당사자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우 낮은 자존감과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무기력함에 빠져있거나 의존심이 많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력과 자립심이 부족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우울감에 빠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비장애인들의 선입견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1월~10월까지 서울시립복지관(1986년 설립)에서 실시하였던 패션 프로그램은 정신지체인들의 자신감 결여, 자기관리 능력부족 등, 장애 특성으로 좌절을 겪고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여 긍정적 자아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남녀 구분 없이 정신지체인 중 개선에 관심과 의지가 있으며 보호자와 참여하거나 본인 스스로 교통편 이용이 가능한 정신지체인을 선정하여, 3개월을 1기로 하여 차밍 스쿨 주1회, Make-up 5회, Coordinate 2회, Walking 3회, Hair 1회, Etiquette 2회, 반복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1기당 10명 이내로 조절하여 개별지도를 통해 각 대상자의 특성이 가능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이 종결될 시에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얼굴형태에 맞는 화장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션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에게 긍정적 자아형성에 바람직한 기회가 되었음을 자신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보다 더 전문적인 패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만을 실시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지속성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고, 대상자들의 변화를 측정하는 사후관리(follow-up)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과 비장애인에게도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I.

### 1.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 당 전체 장애인수는 2000년 3.09%로써, 1995년 조사 2.35% 에 비해 0.74%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은 1995년 81,509명에서 2000년 108,678명으로 조사되었다.<sup>1)</sup>

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팀, 2001.1.

이렇듯 정신지체장애인의 증가의 원인으로는, 첫째 각종 공해와 오염 등으로 매년 2-3%의 기형아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고, 둘째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발달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정신지체인의 수명이 연장되어 성인 지체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정신지체인의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불명의 경우도 상당히 많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다.<sup>2)</sup>

이러한 요인에 의한 정신지체인의 수적인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들의 보호와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대책과 사회재활 프로그램,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지적(知的) 및 행동에 대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사회에 통합하여 직업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은 비장애인들과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지체 장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애계획과 목적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생활을 운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다.<sup>3)</sup>

또한, 자신에 대한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외모, 표정, 자세, 말투 등에서 한눈에 장애인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리숙하고, 부자연스럽고, 단정치 못하다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비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하고 정신지체인이 비장애인에게 다가서는데 또 다른 장애를 주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이들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으나 기능적인 문제와 경험부족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지체인 당사자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우 낮은 자존감과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무기력함에 빠져있거나 의존심이 많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력과 자립심이 부족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우울감에 빠진다고 한다.

이렇듯 자신에게 갖게 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청소년기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며, 가장 큰 이유로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외모에서 많은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후의 정신지체인에게서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 국내 최초로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차밍 스킨 패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정신지체인들을 관찰하고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신지체인들 자신이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비장애인들의 선입견을 해소하는 계기 마련과 앞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패션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2) 김나영, 「정신지체 청소년에 대한 욕구조사」, 서울여자 대학교, 2000, p.1.

3) 성혜란, 「정신지체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8. p.2.

## 2.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조사연구에서는 서울시립복지관에서 실시한 패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대상자들의 사례를 통해 패션 프로그램이 미친 결과와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의 개념 정의, 분류, 특징, 현황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조사연구에서는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사회재활 교육팀이 2001년 1월부터 2001년12월까지 실시한 차밍 스쿨 패션프로그램의 개요와 목표, 내용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사례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논문의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을 밝혔다.

## II.

## 1.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으나 미국 정신 지체 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가 내린 정의가 일반적이다. 199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정신지체는 현재의 기능수행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적 기능 수행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으며, 동시에 그와 관련된 적응적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 기술 영역들 즉, 의사소통·자기관리·가정생활·사회적 기술·지역사회활용·자기지시·건강 및 안전·기능적 교과 학습·여가, 직업 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 진다. 그리고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나타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sup>

‘지적기능의 유의한 평균 이하’는 개인의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에 알맞은 적절히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사용하여 지능검사를 하였을 때, 지능이 약 70에서 75인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초에는 지능검사의 창안으로 정신지체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지능지수(I.Q)를 유일한 도구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지능과 적응행동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해서 예전의 지력지체(知力遲滯)만을 주개념으로 하던 양상에서 지능과 적응 행동간의 총족개념으로 동시에 받아들여야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한다.<sup>5)</sup>

Herber & Grossman은 “적응행동의 지체(遲滯)를 갖는 동시에 지적 능력에도 상당한 지체를 가

4) 김승국외 16인, 「정신지체 아동 교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6, p.122.

5) 김나영, 「정신지체 청소년에 대한 욕구조사」, 서울여자 대학교, 2000, p.7.

질 때에만 정신지체(mental retarded)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2000년 1월)은 장애인을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로 소 분류 하였는데, 정신지체인은 1·2·3급으로 나누고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급 : 지능지수 34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지능지수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 3급 :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의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3.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 복지팀, 2001.1)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도 전국의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며, 1995년의 1,053.5천명에 비해 396.0천명이 증가하였다. 이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1,398.2천명,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천명으로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 3.09%로써 1995년의 2.35%에 비해서 0.74%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은 1995년 81,509명에서 2000년 108,678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1> 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천명)

| 구분    | 1995년   |         |       | 2000년   |         |       |
|-------|---------|---------|-------|---------|---------|-------|
|       | 계       | 재가장애인   | 시설장애인 | 계       | 재가장애인   | 시설장애인 |
| 장애인 수 | 1,053.5 | 1,028.8 | 24.6  | 1,449.5 | 1,398.2 | 51.3  |
| 구성비   | 100.0   | 97.7    | 2.3   | 100.0   | 96.5    | 3.5   |
| 출현율   | 2.35    | 2.37    | -     | 3.09    | 2.98    | -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팀, 2001.1)

<표 2> 개별 장애유형별 장애 출현율

(단위: 천명, %)

| 구분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
| 장애인 수 | 636  | 244   | 222  | 197  | 208  | 143  | 22   | 79   | 27   | 59   |
| 출현율   | 1.35 | 0.52  | 0.47 | 0.42 | 0.44 | 0.31 | 0.05 | 0.17 | 0.06 | 0.13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팀, 2001.1)

III.

1.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1986년 설립)은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1년 1월부터 차밍 스쿨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신지체인들의 자신감 결여, 자기관리 능력부족 등, 장애 특성으로 좌절을 겪고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여 긍정적 자아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남녀 구분 없이 정신지체인 중 개선에 관심과 의지가 있으며 보호자와 참여하거나 본인 스스로 교통편 이용이 가능한 정신지체인을 선정하여, 3개월을 1기로 하여 차밍 스쿨 주1회, Make-up 5회, Coordinate 2회, Walking 3회, Hair 1회, Etiquette 2회, 반복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1기당 10명 이내로 조절하여 개별지도를 통해 각 대상자의 특성이 가능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2.

패션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변화된 이미지와 자긍심 고취, 긍정적 자아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실시하였다.

- (1) 전체목표 -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변화된 이미지를 통해 자신감을 심어준다.
  - ① 하위목표 - 자신의 이미지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 ② 하위목표 - 패션쇼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당당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 ③ 하위목표 - 가정과 복지관의 반복훈련을 통해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2) 전체목표 - 비장애인들에게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① 하위목표 -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 지체인에 대한 호감도를 향상시킨다.

② 하위목표 - 가족, 친지들에게 변화된 이미지를 통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 3.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서울시립 정신지체인복지관과 강남 압구정동에 소재한 엘칸토 차밍스쿨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수업은 강사와 대상자간 man to man 교육으로 특별한 기자재 보다는 복지관과 차밍 스쿨의 시설을 이용하였다.

<표 3>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 참여자         | 진행내용                                                                                                                          |
|------|-------------|-------------------------------------------------------------------------------------------------------------------------------|
| 차밍스쿨 | 1,2,3기 약25명 | * 10회씩 3회에 나누어 교육(1기/2기/3기)<br>차밍 스쿨 (주1회)<br>MAKE-UP 5회<br>COORDINATE 2회<br>WALKING 3회<br>HAIR 1회<br>ETIQUETTE 2회<br>반복훈련 1회 |
| 패션쇼  | 3기 11명      | 2001년 10월 수원대학교 졸업 패션쇼 참여                                                                                                     |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사회재활팀 자료. 2001.11.)

<표 4>프로그램 진행 일정

| 계획상 진행일정표             | 실제 진행일정표                    |
|-----------------------|-----------------------------|
| 1월-프로그램 준비            | 1,2월 - 프로그램 준비              |
| 2,3,4월 - 차밍스쿨 1기 진행   | 3,4,5,6월 - 차밍스쿨 1기 진행       |
| 5,6,7월 - 차밍스쿨 2기 진행   | 6,7,8,9월 - 차밍스쿨 2기 진행       |
| 9,10,11월 - 차밍스쿨 3기 진행 | 8,10,11월 - 차밍스쿨 3기 진행 및 패션쇼 |
| 12월 - 평가 및 마무리        | 11월,12월 - 사업마무리             |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사회재활팀 자료. 2001.11.)

IV.

패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1가 3기, 25명으로 당초 목표보다는 적은 숫자로 진행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지원비용, 강사 수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는 1,2,3기 참가 25명 중 장애 등급 3급으로, 이미지 개선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정신지체인 장애인 3명을 분석하였다.

<사진 1>에서 <사진 8>까지는 복지관에서 촬영한 프로그램 실시 전의 모습과 프로그램 참가 이후 변화된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교한 것이다.

<표 7>은 A사례의 참가자가 프로그램 실시 전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설문에 표기한 내용이며, <표 8>은 프로그램 교육이 끝난 이후 같은 질문지에 본인이 표기한 것을 비교한 것이다.

사례 B, C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한 도표이다.

| <표 5>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의 일반적 사항 |    |    |         |        |      |          |
|---------------------------|----|----|---------|--------|------|----------|
| 사례                        | 성별 | 나이 | 학력사항    | 직업(직위) | 장애등급 | 비고       |
| A                         | 여  | 21 | 고등학교 졸업 | 無      | 3급   | 1기 참가자   |
| B                         | 여  | 19 | 고등학교 재학 | 학 생    | 3급   | 1~3기 참가자 |
| C                         | 여  | 27 | 고등학교 졸업 | 無      | 3급   | 1~3기 참가자 |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사회재활팀 자료, 2001.10.)

1. < A> .



<사진 1> 2000년 2월 촬영(복지관)

<사진 2> 2000년 5월 촬영(복지관)

&lt;표 6&gt; 프로그램 참여 전 설문조사 응답내용

|                  | 그렇지않다 | 그저그렇다 | 매우그렇다 |
|------------------|-------|-------|-------|
| 1. 지적이다          | ✓     |       |       |
| 2. 친절할 것 같다.     | ✓     |       |       |
| 3. 온정적일 것 같다     | ✓     |       |       |
| 4. 예의가 바를 것 같다.  | ✓     |       |       |
| 5. 리더쉽이 있을 것 같다. |       | ✓     |       |
| 6. 매력적이다.        | ✓     |       |       |
| 7. 잘생겼다.         | ✓     |       |       |
| 8. 성실하다.         |       | ✓     |       |
| 9. 결단성 있을 것 같다.  |       |       | ✓     |
| 10. 사랑스럽다.       | ✓     |       |       |
| 11. 단정하다.        |       | ✓     |       |

&lt;표 7&gt; 프로그램 참여 후 설문조사 응답내용

|                  | 그렇지않다 | 그저그렇다 | 매우그렇다 |
|------------------|-------|-------|-------|
| 1. 지적이다          |       |       | ✓     |
| 2. 친절할 것 같다.     |       |       | ✓     |
| 3. 온정적일 것 같다     |       |       | ✓     |
| 4. 예의가 바를 것 같다.  |       | ✓     |       |
| 5. 리더쉽이 있을 것 같다. |       | ✓     |       |
| 6. 매력적이다.        |       | ✓     |       |
| 7. 잘생겼다.         |       | ✓     |       |
| 8. 성실하다.         |       |       | ✓     |
| 9. 결단성 있을 것 같다.  |       | ✓     |       |
| 10. 사랑스럽다.       |       | ✓     |       |
| 11. 단정하다.        |       | ✓     |       |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팀 설문조사 자료. 2001.6.)

## 2. &lt; B&gt;

<사진 3> 2001년 2월 촬영  
(복지관)

프로그램 실시 후

<사진 4> 2001년 5월 촬영  
(복지관)<사진 5> 수원대  
패션쇼 참가  
(2001.10)

| <표 8> 프로그램 참여 전 설문조사 응답내용 |        |        |        |
|---------------------------|--------|--------|--------|
|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지적이다                   | √      |        |        |
| 2. 친절할 것 같다.              | √      |        |        |
| 3. 온정적일 것 같다              | √      |        |        |
| 4. 예의가 바를 것 같다.           | √      |        |        |
| 5. 리더쉽이 있을 것 같다.          | √      |        |        |
| 6. 매력적이다.                 | √      |        |        |
| 7. 잘생겼다.                  | √      |        |        |
| 8. 성실하다.                  |        | √      |        |
| 9. 결단성 있을 것 같다.           | √      |        |        |
| 10. 사랑스럽다.                | √      |        |        |
| 11. 단정하다.                 |        | √      |        |

| <표 9> 프로그램 참여 후 설문조사 응답내용 |        |        |        |
|---------------------------|--------|--------|--------|
|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지적이다                   |        | √      |        |
| 2. 친절할 것 같다.              |        | √      |        |
| 3. 온정적일 것 같다              |        | √      |        |
| 4. 예의가 바를 것 같다.           |        | √      |        |
| 5. 리더쉽이 있을 것 같다.          | √      |        |        |
| 6. 매력적이다.                 | √      |        |        |
| 7. 잘생겼다.                  | √      |        |        |
| 8. 성실하다.                  |        | √      |        |
| 9. 결단성 있을 것 같다.           |        | √      |        |
| 10. 사랑스럽다.                | √      |        |        |
| 11. 단정하다.                 |        |        | √      |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팀 설문조사 자료 2001.11.)

3. < C> .



<사진 6> 2001년 2월 촬영  
(복지관)

프로그램 실시 후



<사진 7> 수원대 패션쇼  
(2001.10)



<사진 8> 수원대  
패션쇼 참가  
(2001.10)

| <표 10> 프로그램 참여 전 설문조사 응답내용 |        |        |        |
|----------------------------|--------|--------|--------|
|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지적이다                    |        | √      |        |
| 2. 친절할 것 같다.               |        |        | √      |
| 3. 온정적일 것 같다               |        |        | √      |
| 4. 예의가 바를 것 같다.            |        |        | √      |
| 5. 리더쉽이 있을 것 같다.           |        | √      |        |
| 6. 매력적이다.                  |        | √      |        |
| 7. 잘생겼다.                   |        | √      |        |
| 8. 성실하다.                   |        |        | √      |
| 9. 결단성 있을 것 같다.            |        | √      |        |
| 10. 사랑스럽다.                 |        | √      |        |
| 11. 단정하다.                  |        |        | √      |

| <표 11> 프로그램 참여 후 설문조사 응답내용 |        |        |        |
|----------------------------|--------|--------|--------|
|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지적이다                    |        |        | √      |
| 2. 친절할 것 같다.               |        |        | √      |
| 3. 온정적일 것 같다               |        |        | √      |
| 4. 예의가 바를 것 같다.            |        |        | √      |
| 5. 리더쉽이 있을 것 같다.           |        |        | √      |
| 6. 매력적이다.                  |        |        | √      |
| 7. 잘생겼다.                   |        |        | √      |
| 8. 성실하다.                   |        |        | √      |
| 9. 결단성 있을 것 같다.            |        | √      |        |
| 10. 사랑스럽다.                 |        |        | √      |
| 11. 단정하다.                  |        |        | √      |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팀 설문조사 자료, 2001.11.)

설문내용의 출처는 Joseph. Forgas “Interpersonal Behavior. The psychology of social interaction: 개인인식에 대한 기대 역할 이론(1995)”에 근거 하여 작성되었으며, 조사 도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999년 11월에 전국 36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사용된 “장애인복지관 운영평가 프로그램”중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입증 받은 공인된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sup>6)</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신지체 장애인 자신이 갖고 있는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사례 A의 경우 불과 3개월만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3기에 모두 참여한 사례B, C의 경우는 더욱 향상되어 수원대 패션쇼에 참가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 V.

정신지체인들 또한 비장애인 만큼 그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그러나 항상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그들의 개별화를 극대화시키지 못한 획일적인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복지관 환경은 시설 낙후와, 장비 부족, 공간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 등 아주 오

6)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 정신지체인의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패션프로그램 만족도 결과보고서, 2001.11

래 전부터 심각하게 인식되어져 온 큰 문제였지만, 예산 등의 문제가 넘기 힘든 큰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어 필요만큼 많은 개선이 있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차밍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기대하는 변화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상자, 보호자의 새로운 욕구나 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2001년 1월~12월까지 서울시립복지관에서 실시되었던 차밍 스쿨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남녀 구분 없이 정신지체인 중 개선에 관심과 의지가 있으며 보호자와 참여하거나 본인 스스로 교통편 이용이 가능한 정신지체인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이 종결될 시에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얼굴형태에 맞는 화장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대상자들이 외모에서부터 조그만 변화를 보이자 가족, 친척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칭찬을 하고 대상자들에게 뭔가 질문을 하면 자신감 있는 대답도 할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결과로 2001년 10월 섬유센터에서 개최되었던 수원대학교 졸업 패션쇼에 참여한 11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자신들 뿐 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향상에 많은 효과를 주었으며 패션쇼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였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부러움과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期당 3개월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효과성을 논하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역부족이며, 사례연구의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례 A, B, C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에게 자신 스스로의 관리 능력 제공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회야말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자명하다. 특히 일반 업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정신지체인들 에게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의 직업 재활 팀에 속해 있는 정신지체인들 에게 1년 단위 이상의 정규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하여 꾸준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취업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思慮된다.

본 연구의 결론과 그에 따른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패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션프로그램이 장애인들에게 긍정적 자아형성에 바람직한 기회가 되었음을 호감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보다 더

전문적인 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프로그램 종결 단계에는 반드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확인시키고, 연계프로그램을 안내한다거나, 부모 모임을 통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만을 실시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지속성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고, 대상자들의 변화를 측정하는 사후관리(follow-up)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이후의 정신지체인들은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고, 마음에 드는 의류를 구입하고 싶어 하지만 보호자나 주변인들의 염려 혹은 반대로 인해 자신의 선택·권한 부여가 낮은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밍스쿨, 메이크업 등 비장애인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이들에게는 거의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는 패션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신지체인들의 요구와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대책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기회 제공이야말로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참가자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과 비장애인에게도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접수: 2002년 2월 21일)

## 【                      】

김나영, 「정신지체 청소년에 대한 욕구조사」, 서울여자 대학교, 2000.

김동주, 「부모태도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적응기술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1999.

김승국외 16인, 「정신지체 아동 교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6.

권주석, 「포스트모더니즘과 정신지체 아동의 교육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단국대학교, 2000.

맹준남, 「정신지체장애인과 정상인의 우식경험도 비교조사 연구」, 원광대 대학원, 2000.

박동이, 「정신지체 고등학생을 위한 물건 구입하기 기술 교수의 효과」,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000.

박명원, 「정신지체아동 생활시설의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경남대 행정대

학원, 2000.

박수련,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2001.

성혜란, 「정신지체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8.

송남영,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원, 1999.

이태우,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정신지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단국대 행정대학원, 2001.

장 숙, 「정신지체인의 사회적응훈련 효과성에 관한 단일집단 사례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1997

장효신, 「성장 상담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및 성격요인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1994

조성갑, 「정신지체인의 자아 존중감과 내적통제성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 프로그램」, 카톨릭 대학교, 2000.

황수정, 「공동생활가정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1.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 정신지체인의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패션프로그램 실시 사전, 사후 호감도 조사, 2001.4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 정신지체인의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패션프로그램 실시 사전, 사후 호감도 조사, 2001.6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 정신지체인의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패션프로그램 중간평가표, 2001.6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 정신지체인의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패션프로그램 만족도 결과보고서, 2001.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팀, 200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2001.1

# Fashion Program of affirmative self-formation for mental retarded people

Dept. of Fusion Design, Doctoral Course of Kookmin Univ. **Hye-Sook Park**

Dept. of Fashion Design, Professor of Kookmin Univ. **Jae-Jung Lee**

The definition of mental retarded people can be different among scholars but the following definition by A.A.M.R(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1992) has been generally accepted. : Mental retard means the defects of adaptation behavior and remarkably lower status of I.Q(intelligence quotient) -such as under 70-75 I.Q.- and also, these symptoms appear in the period of growth before 18-year-old.

In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I.Q test was the only tool to find out their mental retard.

But, recently, the academic world has taken a serious view of connection between the intelligence and the adaptation behavior to get a right definition of mental retard that it should include not only the intelligent retard but also the sufficient condition between the intelligence and the adaptation behavior.

Most of mental retarded people don't have the ability to make their life-plan and goals or to develop their life. Due to these reasons, they have a negative self images which make them devalue themselves.

According to some researches, mental retarded people also have a desire to pursue their beauty of appearance but they still have a technical problem and the lack of experience to express it. Mental retarded people also recognize their images and it makes them abuse themselves or feel enervation so that they don't have enough will and strength to join the vocational program or self-support program after high school and it also makes them give up things easily or feel melancholy.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hat ; to recover mental retarded people's self-respect through the charming school fashion program for affirmative self-formation and to annul normal people's prejudice against mental retarded people.

The fashion program -which was held in the Seoul municipal welfare hall from February, 2001 to October, 2001.- paid due regard to mental retarded people's weaknesses such as the lack of self-confidence, self-control and their negative self images so that this fashion program could offer various chances to them in order to make affirmative self-formation through watching their changes by themselves.

The participants of program were selected among over 18 years old male and female mental retarded people who are willing to get over their retard and who can join the program with their patron or who

can commute by themselves.

The program was set as the followings to reflect each participant's special features. ; Charming school(once a week), Make-up(5 times), Coordinate(2 times), Walking(3 times), Hair( 1 time), Etiquette( 2 times) and repeated training. ---- One term (3 months)

As we see the result of surveys, the fashion program for mental retarded people offers good chances to them to make an affirmative self-formation so, much more specific and various research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meet their special features and each individual's psychological special features.

In this study, there should be a of the program, also should be insured follow-up system that surveys changes in the objects.

I hope that the fashion program should be settled as a much developed program which gives chances to not only the participants but also their patrons and normal people to annul their prejudice against mental retarded people so that we all can harmonize with others, no matter they are mental retarded or not.